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The Study on Premarital Preparation of Single Men and Wome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혜선
조교 이정음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Hye Seon

Assistant : Lee, Jung Up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관련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marital preparation of single men and women. The number of subjects was 393 premarital couples(196 males and 197 females) in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Pusan and Daegu.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premarital preparation evaluation scale developed by Kim Hye Seon & Shin Soo Ah(2002).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Cronbach's α , t-test, ANOVA, Duncan-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remarital preparation status was somewhat higher than average and the level of premarital preparation awareness was very high. Second, preparation status of premarital couples was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by some variables including sex, age, occupation, the period of dating, religion. Third, preparation awareness of premarital couples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ome variables including sex, age, academic ability, the period of dating.

주제어(Key Words): 결혼준비(premarital preparation), 결혼준비척도(premarital preparation evaluation scale), 결혼준비실태(premarital preparation status),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premarital preparation awareness)

Corresponding Author: Hye-Seon Kim,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Uni., 169 Dongsung-Dong, Chongr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0 Fax : 82-2-3668-4188 E-mail : khyeseon@knou.ac.kr

* 본 연구는 200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I. 서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혜선·신수아, 2002).

인간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며, 이 창조된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한다. 즉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김혜선·박혜인·육선화, 2002). 이러한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김양희·이형실, 1997). 그러나 개인주의, 남녀 평등주의, 남녀간의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9.2건에서 2001년 6.7건으로 줄어든 반면 이혼율은 같은 기간 0.4건에서 2.8건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2). 이것은 상당수의 이혼부부가 결혼 전에 이미 문제를 안고 있고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이혼 선진국이 된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결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 혼수보다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지식과 자세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2, 10, 5일자). 그러므로 혼인 전 단계의 결혼준비는 성숙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결혼준비가 결혼적응 및 안정된 결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 Fowers &

Olson, 1986; Olson & Olson, 1999; Stanley & Markman, 1997)이 보고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결혼 전에 결혼준비정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CMRE, FOCCUS, PREPARE, RELATE)이 개발되어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배우자선택에 관한 연구들(김영경, 2000; 장설희, 2000; 송성아, 2002)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기초 연구들(김광률, 2001; 김혜석, 1990; 박미경, 1997; 오윤자, 1994; 정미향·김득성, 2001; 정민자, 1996; 정유경, 2001; 조성미, 2002; 최규련, 1997)이 대부분이었으며, 효과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혼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척도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혜선·신수아(2002)가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토대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 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결혼에 대한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여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 정도에 따른 실태파악을 통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문헌고찰

1. 결혼준비의 개념정의 및 논의

결혼준비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절차나 혼수준비와 같은 결혼의례의 준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정서적·인격적·신체적·경제적·법적·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혜선·박희성, 2001). 결혼문화나 가치관은 나라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Markey, Micheletto와 Becker(1985), Fowers와 Olson(1989) 등

결혼준비척도를 개발한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준비라는 개념이 단지 결혼식 절차나 혼수준비 등 가시적인 결혼준비 과정만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점차 예방차원의 결혼준비 개념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의 신부교실 등이 미혼 여성이나 예비신부들에게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을 가르쳤던 것과 달리 미혼 남녀 및 예비부부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과 준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결혼준비 강좌들이다(정민자, 1996).

특히 예방차원의 결혼준비개념이 부각되면서 결혼전 시기에 대한 논의는 결혼준비교육이라는 용어로 대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교육내용 중의 하나가 결혼준비정도를 측정(Olson, 1983)하는 것이다. 즉 결혼준비도 측정은 결혼준비의 개념이 문제점을 선별하는 병리적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면서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나아가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김혜선·신수아, 2002)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결혼준비척도와 하위영역

가장 오래된 결혼준비도 측정도구는 Manson(1965)의 CMRE(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이다. 결혼 전 커플들의 결혼준비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발된 질문지로서 주로 상담장소에서 이용된다. 이 척도는 총 115개의 문항들을 8개 하위영역에 중복적으로 포함하여 총 23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커플의 취약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항 자체에서도 커플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MRE는 문항중복의 문제와 함께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담용 질문지로서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임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Markey, Micheletto와 Becker(1985, <http://www.focusinc.com>)의 FOCUS는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되어 제작된 척도로서 커플의 각 상대방이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고 커플에게 관심사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척도는 커플의 조화도, 기술영역, 결혼부속물, 결혼식요인으로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총 18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브리검영 대학(1997, <http://relate.byu.edu>)에서는 결혼전·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Burr(1980)에 의하여 Marital Inventories가 개발되어 10년 동안 사용한 뒤 마침내 1997년 RELATE(RELATIONSHIP Evaluation)로 개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영역, 파트너와의 동의, 각자 가족경험에 대한 상대방과의 지각차이, 술·돈문제 등 문제영역의 4개 영역 총 271개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결혼을 할 것인지 혹은 관계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Fowers, Montel과 Olson(1996)은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PREPARE(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전 커플들의 관계의 강도와 문제영역을 측정하며 커플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된 진단적 도구이다. 1978년 초판이후 3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12 영역에서 19개 영역으로 측정영역을 확대하여 수정 개발 하였다. 본래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에게 상담을 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었으며, 이미 100만쌍 이상이 결혼 전에 이 검사를 받았다. 인성, 관계에서의 개인내적인 영역, 관계에서의 개인외적인 영역, 외부문제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165개의 진술문형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척도들이 결혼준비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 임상적인 상담이나 결혼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결혼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이 90년대 이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들(김혜

〈표 1〉 결혼준비척도 문항

하위영역(문항수)	문항내용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자녀 양육시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 의논한다. 2. 우리는 누가 돈 관리를 할 것인지 합의한다. 3. 우리는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의논한다. 4. 우리는 생활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5. 우리는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에 대해 의논한다. 6. 우리는 아내가 집안일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한다. 7. 우리는 자녀 양육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해 의논한다. 8. 우리는 자녀가 받아야할 조기교육 등에 대해서 의논한다. 9. 우리는 남편이 집안일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한다. 10. 우리는 각자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성숙(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것 같아 두렵다. 12.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다. 13.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15. 나는 세상이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성공하려면 노력하는 것보다는 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손해만 본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20. 나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실제의 내가 항상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22. 나는 결혼생활에서 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그의 애정표현에 만족한다. 24. 나는 그의 감정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 25. 나는 그를 존중한다. 26. 나는 그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27. 나는 그와 사귀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28.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기대와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29. 나는 그의 취미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 30. 나는 그를 성적인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31. 나는 나의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를 고려한다. 32. 나는 그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3. 나는 결혼생활에서 그와는 가까이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결혼관(3)	<ol style="list-style-type: none"> 34. 나는 재미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나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그를 좋아할지라도 그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36. 나는 일단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8)	<ol style="list-style-type: none"> 37. 나는 그가 어떠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는지 잘 알고 있다. 38.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39. 나는 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다. 40. 나는 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1.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가 많다. 42. 나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잘 알고 있다. 43. 결혼후 분가해서 살 것인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인지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다. 44. 우리는 만약 분가한다면 시가나 친정을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표 1〉 결혼준비척도 문항

하위영역(문항수)	문항내용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7)	45. 나는 그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46. 나는 그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7. 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기꺼이 의논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8. 그는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 49. 그는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다. 50. 나는 그와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51.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논의를 통해 의견일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3)	52. 나는 어려움에 빠지면 우선 부모님을 찾는다. 53. 나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54. 나는 결혼 후에 일어날 경제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다.

석, 1990; 박미경, 1997; 오윤자, 1994; 정미향·김득성, 2001; 정민자, 1996; 최규련, 1997), 종교기관(기독교 중심)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 연구들(김광률, 2001; 송성아, 2002; 정유경, 2001; 조성미, 2002)과 배우자선택과 관련된 연구들(김영경, 2000; 이현승, 1997)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들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기초연구들로서 효과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결혼준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결혼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의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김혜선·박희성(2001)은 결혼준비의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평가영역을 개인적 준비 측면, 관계적 준비 측면, 그리고 결혼생활 준비 측면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준비 측면은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 건강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관계적 준비 측면은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자율성 등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혼생활 준비 측면에는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파악 및 이해 등의 세부영역이 포함된다.

김혜선·신수아(2002)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결혼준비정도 측정함으로써 안정된 결혼을 영위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7개 하위영역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82개 문항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54개 문항으로 추출하였으며, 우리나라 결혼준비 실정에 맞게 구성되었다. 결혼준비척도 문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 및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도시지역(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며, 결혼상대자가 있는 혼인력기의 미혼남녀이다. 2002년 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3)

변수	집단	빈도(%)		
성별	남	196(49.9)		
	여	197(50.1)		
연령		본인	결혼상대자	
		25세 이하	114(30.1)	107(28.9)
		26-30세	198(52.4)	211(57.0)
		31세 이상	66(17.5)	52(14.1)
학력	고졸이하	119(31.2)	83(22.2)	
	전문대졸(대학재학중)	102(26.8)	86(23.0)	
	대졸이상	160(42.0)	205(54.8)	
직업	학생	35(9.2)	41(11.1)	
	생산·판매서비스직	114(29.2)	82(22.3)	
	사무·관리직	131(34.4)	144(39.1)	
	전문기술·관리직	63(16.5)	65(17.7)	
	무직 및 기타	37(9.7)	36(9.8)	
교제기간	12개월 이하	120(31.6)		
	13-24개월	120(31.6)		
	25-36개월	62(16.3)		
	37개월 이상	70(20.5)		
거주지	서울 및 수도권	265(67.5)		
	부산	46(11.7)		
	대구	32(8.1)		
	광주 대전	20 (5.1) 30(7.6)		
연고지	대도시	230(58.5)		
	중소도시	101(25.7)		
	읍·면 이하	60(15.3)		
	외국	2(0.5)		
월소득	100만원 이하	138(36.3)		
	101-200만원	198(52.1)		
	201-300만원	32(8.4)		
	301만원 이상	12(3.2)		
종교	기독교	104(26.7)		
	천주교	51(13.1)		
	불교	91(23.4)		
	기타	10(2.6)		
	종교없음	133(34.2)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 거주지의 지역별 인구비율이 표본추출시의 지역별 인구비율과 다른 것은 조사대상자중 생활근거지는 서울이고 거주지가 대전인 경우 때문임.

재 전국 초혼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92.1%, 여성의 94.3%가 20~34세에 혼인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통계청, 2002), 이 중에서 배우자감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이므로 결혼상대자가 있는 20~34세의 미혼 남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34세 인구 중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난 대도시(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조사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조사도구의 구성

1) 결혼준비실태

결혼준비실태 척도는 김혜선, 신수아(2002)가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7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로써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은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은 자녀의 양육이나 금전관리, 부부의 역할분담, 집안 일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하여 의논하는지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숙요인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도이며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성숙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은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것으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는 '나는 그(그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을 잘 알고 있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

〈표 3〉 결혼준비도 척도의 신뢰도

결혼준비도 하위요인(문항수)	Cronbach's α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10)	.91
성숙(10)	.77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13)	.84
결혼관(3)	.62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8)	.73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7)	.69
부모로부터의 독립(3)	.64
전 체(54)	.93

수족 가족과 친척 및 친구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은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와 상대방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5점 Likert식 척도이며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 3〉과 같다.

2)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척도는 김혜선·박희성(2001)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준비 평가영역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 측면, 결혼당사자 쌍방간의 관계측면, 실제 결혼준비측면, 기타 측면을 포함한 4가지 측면 총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측면은 성숙도, 독립성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결혼당사자 쌍방간의 관계측면은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 유사·양립·보완성, 의사소통정도, 자율성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결혼준비측면은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 및 양육, 금전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이해의 세부영역이 포함되며, 기타측면은 건강, 결혼의례준비, 연령, 교제기간을 세부영역으로 포함하였다. 각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필요하다' 5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조사자 7명이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비례적 층화추출을 통하여 성, 지역,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4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각 지역별 인구비율에 의하여 서울 및 수도권 71%, 부산 11%, 대구 8%, 광주 5%, 대전 5%로 할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을 성별, 교육수준별로 분류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내용은 동일하나 인칭대명사가 다른 남성용, 여성용 질문지를 총 400부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한 393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 α , t-test, 일원분산분석, 단컨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 및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1)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7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결혼관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3.86),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3.75), 부모로부터의

〈표 4〉 결혼준비실태

하위요인	M	SD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3.41	.78
성숙	3.71	.56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	3.75	.54
결혼관	4.12	.64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3.65	.58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3.86	.54
부모로부터의 독립	3.73	.71

독립(3.73), 성숙(3.71),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3.65),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3.41)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김혜선·박희성, 2001)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노력의지는 높은 반면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과 같은 결혼 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은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전체평균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당사자 쌍방간의 관계측면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측면이 4.19점, 실제결혼준비측면이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측면이 3.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건강(4.55), 상대방에 대한 이해(4.54)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의례준비(3.49), 교제기간(3.33), 연령(3.23)이 낮게 나타났다. 즉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준비실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애정, 의사소통, 상대방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례준비나 연령같은 것은 결혼준비에 있어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의례준비 중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결혼에 앞서 구체적

〈표 5〉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M	SD
개인적 측면	성숙도	4.17	.76
	독립성	4.21	.82
	전체	4.19	.71
결혼당사자 쌍방간의 관계측면	애정도	4.48	.71
	상대방에 대한 이해	4.54	.67
	유사·양립·보완성	4.16	.79
	의사소통정도	4.37	.74
	자율성	4.02	.79
실제 결혼준비 측면	전체	4.31	.57
	성	4.15	.75
	결혼관	4.07	.79
	결혼생활정보	3.85	.87
	역할분담	4.00	.85
	자녀출산 및 양육	4.15	.79
	금전관리	4.14	.80
기타 측면	양가가족에 대한 이해	4.34	.75
	전체	4.10	.59
	건강	4.55	.77
	결혼의례준비	3.49	.97
	연령	3.23	1.05
기타 측면	교제기간	3.33	1.12
	전체	3.65	.73

인 계획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후에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이 앞서서 아직 결혼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준비실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던컨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제기간($p < .01$)과 종교($p < .01$)로 나타났다(표 6). 교제기간이 13개월에서 24개월된 사이가 12개월 이하보다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에 대한 준비가 더 높았다. 이는 교제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보다 1-2년사이가 자녀양육문제나

금전관리, 부부의 역할분담과 같은 현실적인 결혼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가 기독교·천주교·무교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 특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독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계에서는 기존에 결혼준비 강좌나 집단상담들이 다양하게 진행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집단보다 결혼준비실태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교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들이 극소수의 예비부부에게 단기간의 교육으로 시행되었고, 그 효과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제기간(p<.01)이다(표 7). 교제기간이 13개월-24개월, 25개월 이상이 12개월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교제기간이 길수록 서로의 애정과 성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이해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001)과 종교(p<.01)로 나타났다(표 8).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관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천주교가 기독교, 불교, 무교 및 기타 집단보다 결혼관이 낮았다.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제기간(p<.05)과 종교(p<.01)이다(표 9). 교제기간이 13-24개월, 25개월 이상이 12개월 이하보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다는 선행연구(Olson, 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가 기독교, 천주교, 무교 및 기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교집단의 경우 다른 종교 집단보다 보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이 두드러져 커플 둘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영역에서 유의한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변 수		빈 도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M	SD	F	D
교 제 기 간	12개월 이하	120	3.24	.91	5.02**	A
	13-24개월	120	3.56	.68		B
	25개월 이상	153	3.41	.71		AB
종 교	기독교	104	3.33	.78	4.66**	A
	천주교	51	3.35	.87		A
	불 교	91	3.67	.74		B
	무교 및 기타	143	3.32	.73		A

** p<.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

변 수		빈 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			
			M	SD	F	D
교 제 기 간	12개월 이하	120	3.61	.63	7.26**	A
	13-24개월	120	3.87	.45		B
	25개월 이상	153	3.75	.51		B

** p<.01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결혼관

변 수		빈 도	결혼관				
			M	SD	t	F	D
성 별	남	196	4.29	.59	4.31***		
	여	197	4.01	.66			
종 교	기독교	104	4.21	.59	4.66**		B
	천주교	51	3.93	.73			A
	불 교	91	4.24	.62			B
	무교 및 기타	143	4.14	.63			B

** p<.01 *** p<.001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변 수		빈 도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M	SD	F	D
교 제 기 간	12개월 이하	120	3.53	.60	4.18*	A
	13-24개월	120	3.73	.52		B
	25개월 이상	153	3.68	.59		B
종 교	기독교	104	3.63	.58	4.99**	A
	천주교	51	3.58	.60		A
	불 교	91	3.85	.58		B
	무교 및 기타	143	3.57	.54		A

* p<.05 ** p<.01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변 수		빈 도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M	SD	t	F	D
성 별	남	196	3.77	.52	-3.43**		
	여	197	3.95	.54			
직 업	학 생	35	4.01	.49	2.48*		B
	생산·판매서비스직	114	3.89	.52			AB
	사무·관리직	132	3.91	.51			AB
	전문기술·관리직	63	3.78	.53			AB
	무직 및 기타	37	3.68	.65			A
교 제 기 간	12개월 이하	120	3.82	.57	3.08*		A
	13-24개월	120	3.96	.51			B
	25개월 이상	153	3.81	.52			A

* p<.05 ** p<.01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01), 직업(p<.05), 교제기간(p<.05)이다(표 10).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혼준비기간이나 교제기간 동안 갈등이 발생하면 여성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대화보다

〈표 1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독립

변 수		빈 도	부모로부터의 독립				
			M	SD	t	F	D
성 별	남	196	3.84	.69	2.97**		
	여	197	3.63	.71			
연 령	25세 이하	114	3.65	.69	4.12*		A
	26-30세	198	3.72	.72			A
	31세 이상	66	3.95	.63			B
종 교	기독교	104	3.70	.75	3.24*		A
	천주교	51	3.50	.72			A
	불 교	91	3.87	.75			B
	무교 및 기타	143	3.77	.63			B

* p<.05 ** p<.01

는 화를 내는 경향이 여성보다 두드러진다.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이 무직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제기간의 경우, 13-24개월 사이가 12개월 이하, 25개월 이상보다 높았다. 즉 1-2년 교제한 커플이 1년 이하나 2년 이상 사귀 커플보다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능력이 높았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는 갈등이 많지 않을뿐더러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능력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2년 이상 사귀다 보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교제기간으로 1-2년 정도를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사회 통념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01), 연령(p<.05), 종교(p<.05)이다(표 11).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1세 이상이 30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심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정신적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이나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생활이나 기타 경험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드물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타성이 강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와 무교 및 기타 종교가 기독교와 천주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던컨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에서는 실제 결혼준비측면과 기타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에 의하면 실제 결혼준비측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01)과 교제기간(p<.05)이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실제 결혼준비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실제 결혼에 앞서 남성보다 준비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준다. 교제기간에 따라서는 13-24개월, 25개월 이상이 12개월 이하보다 실제 결혼준비측면이 높았다. 즉 교제기간이 길수록 결혼준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에 의하면 기타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실제 결혼준비측면

변 수		빈 도	실제 결혼준비측면				
			M	SD	t	F	D
성 별	남	195	4.00	.54	-3.30**		
	여	196	4.19	.61			
교 계 기 간	12개월 이하	118	3.82	.66	1.73*		A
	13-24개월	120	4.16	.47			B
	25개월 이상	153	4.21	.60			B

* p<.05 ** p<.01

〈표 1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기타측면

변 수		빈 도	기타측면				
			M	SD	t	F	D
성 별	남	195	3.53	.69	-3.19**		
	여	196	3.77	.76			
연 령	25세 이하	114	3.71	.78	3.12*		B
	26-30세	198	3.68	.71			B
	31세 이상	64	3.45	.65			A
학 력	고졸이하	119	3.76	.74	3.24*		B
	전문대졸(대학재학중)	102	3.51	.68			A
	대졸이상	158	3.66	.75			AB

* p<.05 ** p<.01

보인 변수는 성별(p<.01), 연령(p<.05), 학력(p<.05)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타측면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30세 이하가 31세 이상보다 기타측면의 점수가 높았다. 또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가 전문대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기타측면은 건강, 결혼의례준비, 연령, 교제기간을 말하는데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개인적·관계적·실제 결혼측면보다 결혼에 있어 건강, 연령, 교제기간이나 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김혜선·신수아(2002)가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토대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 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결혼에 대한 현명

한 계획을 세우고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여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7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결혼관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3.86),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3.75), 부모로부터의 독립(3.73), 성숙(3.71),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3.65),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3.41)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평균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당사자 쌍방간의 관계측면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측면이 4.19점, 실제 결혼준비측면이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측면이

3.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건강(4.55), 상대방에 대한 이해(4.54)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의례준비(3.49), 교제기간(3.33), 연령(3.23)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관이나 커플 쌍방간의 관계측면에 대한 준비정도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자녀양육, 금전관리, 역할분담과 같은 구체적인 결혼생활 계획에 대한 준비는 미약하며 결혼준비에 있어 결혼의례나 연령, 교제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실제로 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치관 정립, 개인내적·외적인 성숙같은 준비보다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준비척도를 토대로 준비정도를 측정·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결혼 전후 관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결혼준비실태를 살펴보면,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은 교제기간이 길수록, 종교가 불교일 때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에 대해서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의 경우 다른 종교보다 결혼관이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생이 무직 및 기타직업에 비해, 교제기간이 1-2년 사이가 1년 미만이나 2년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교·무교 및 기타종교가 기독교·천주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로 성별, 교제기간,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데, 결혼준비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성별, 교제기간, 종교와 같은 변수에 중점을 두어, 그 특성에 맞는 결혼준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실제결혼준비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제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단순히 결혼준비실태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결혼준비 정도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준비정도가 결혼생활의 안정과 관계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결혼준비도 척도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하위영역이 7개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문항수가 총 54개로 대부분의 외국 결혼준비도 척도가 10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문항수가 적어,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를 알아보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문항을 첨가하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결혼준비도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준비실태와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해주고 미혼남녀의 현명한 결혼준비 의식과 관계 향상을 위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다양한 후속연구와 실제 결혼준비 계획이나 상담에 필요한 척도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광률(2001).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 이형실(1997).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영경(2000). 기혼남녀의 혼전·혼후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2002).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혜선, 박희성(2001). 델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2.
- 김혜선, 신수아(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41-53.
- 문화일보. 2002년 10월 5일자.
- 박미경(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아(2002). 결혼 전의 심리적 준비와 배우자선택을 위한 기독교상담연구: 배우자선택 택시기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송(1997). 배우자 선택과정의 변화와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9, 3-28.
- 장설희(2000). 배우자 선택의 선호요인에 관련된 변인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향, 김득성(2001).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3.
-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1.
- 정유경(2001). 효과적인 결혼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미(2002).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교회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7).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한국어에서의 적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141-166.
- 통계청(2002). 인구주택총조사.
-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 *Marriage preparation in the catholic church: Getting it right*. Omaha, NE: Creighton University.
- Fowers, B. J. & Olson, D. H. (1989). ENRICH Marital inventory: A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assess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65-79.
- Fowers, B. J., Montel, K. H. & Olson, D. H. (1996). Predictive validity of types of premarital coupl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103-119.
- Fowers, B. J. & Olson, D. H. (1986). Predicting marital success with PREPARE: A predictive validity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 Manson, M. P. (1965). 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 manual. WPS.
- Olson, D. H. & Olson, A. K. (1999). PREPARE/ENRICH Program: Version 2000. *Journal of Family Ministry*, 11(4), 28-53.
-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Marriage in the 90s: A nationwide random Phone Survey*. Denver, Colorado: PREP, Inc.
- <http://relate.byu.edu>
- <http://www.focussinc.com>

(2003년 1월 28일 접수, 2003년 2월 17일 채택)